



희관이 본 동아시아 근대언론의 생성 세계언론사의 시점에서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kangmk@snu.ac.kr

희관 임근수 선생의 저술을 살펴보면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보아도 대단한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선생의 주요 연구관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 세계신문사와 동아시아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아도 탁월한 업적일 뿐만 아니라 후학들이 희관의 업적을 제대로 잊지 못함이 안타깝다. 둘째는 언론사 연구방법, 특히 비교사적 연구와 사회적 연구방법을 성찰하는 연구 분야다. 근대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원시 커뮤니케이션까지 거슬러 사회제도와 전체 사회변동의 역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희관 선생의 관심은 언론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그는 저널리즘의 공익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론화하고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에 많은 축적을 이루었다. 언론 경영진으로서의 경험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을 테고, 실제 논문을 읽어 보면 미디어 산업론이 초기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희관 선생의 학문 세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오늘날 우리 후학들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KEYWORDS 희관 • 임근수 • 동아시아 근대언론 • 신문발달사
• 세계신문사 • 근대신문의 생성 • 중역적 근대화 • 미디어 산업론

1. 들어가는 말

1979년 1월 21일 희관 선생이 홀연히 세상을 떠나셨을 때 많은 분들이 황망해 하고 슬퍼했던 것을 기억한다. 정년퇴임을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창 학문의 꽃을 피우던 중, 만개하기 직전 웅대한 학문의 꿈이 꺾이게 됨을 안타깝게 여겼다. 차배근 교수는 대학신문에 쓴 조사에서 선생의 영전에 서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썼다.

이제까지 갖고 닦으신 사관과 발굴해 오신 새로운 사료를 종합해서 〈韓國 言論思想史〉를 써서 저희들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어이 잊으시고 그리 홀연히 떠날 실 수 있습니까? 이제 누가 능히 박사님과 같이 英, 獨, 仏, 日語 및 한문에 능통하고, 수 만년에 걸친 장구한 인간 커뮤니케이션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언론사상을 파악해서 그것을 집대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일찍 세상을 여의시어 희관의 학맥이 융성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는 생각을 한 지 오래되었지만, 죄송스럽게도 무심하게 지나왔다. 마침 신문연구소 학보 50호 기념을 맞아 다시 한 번 희관선생의 삶과 학문세계를 되짚어 볼 수 있었다. 선생이 쓰신 논문, 책, 신문과 잡지 기고문, 그리고 생전에 모아두신 스크랩 등을 다시 살펴보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희관 선생의 저술 목록을 우선 정리해 보면 40여 년이 지난 오늘에 보아도 대단한 학문적 축적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세 분야에 선생의 연구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우선적으로 세계신문사와 동아시아 근대언론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루었다. 오늘의 눈으로 보아서도 탁월한 업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학들이 희관의 이런 업적을 제대로 잊지 못했음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아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둘째는 언론사 연구방법, 특히 비교사적 연구와 사회사적 연구방법을 성찰하는 연구 분야다. 근대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원시 커뮤니케이션가

지 거슬러 사회제도와 전체 사회변동의 역사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들이 보인다. 언론학 전체가 어느 때부터인가 탈역사화해가고 있고 언론사, 저널리즘의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도 몇 개 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세 번째, 희관 선생의 관심은 언론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비롯된다. 그는 저널리즘의 공익적 성격과 기업적 성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론화하고 현실에 적용할 것인가에 많은 축적을 이루었다. 언론 경영진으로서의 경험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끌었을 테고, 실제 논문을 읽어 보면 미디어 산업론이 초기적 형태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희관 선생의 학문 세계를 다시 되돌아보고, 오늘날 우리 후학들에게 주는 교훈을 얻어 보고자 했다.

〈저서〉

1967 『신문발달사』. 서울: 정음사.

1975 *Mass Communication in Asia: A Book of Readings*. 공저(Singapore ; Asia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1975 *A History of Mass Communication in Asia* 공저(Singapore ; Asia Mass Communication Research and Information Center).

1976 한국언론삼십년사. 『해방삼십년사』,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1977 『매스 커뮤니케이션 원론』. 서울: 민중서관(근간).

1984 『언론과 역사』. 서울: 정음사.

〈주요 논문〉

1961 신문의 용어 용자문제에 대한 고찰. 『법정논업』, 중앙대학교

1961 한국신문구조론 서설. 『신문연구』(관훈클럽), 제5권, 제2호.

1964 편집권의 옹호와 독립. 『신문평론』, 제2호.

1968 신문의 보급률에 관한 소고. 『한국사회학』, 제4집.

1969 매스 커뮤니케이션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일고찰. 『신문연구소학보』,

제6집.

1969 동양에 있어서의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제36호.

1970 A History of English-Language Journalism in Korea. 『신문연구소학보』, 제7집.

1971 언론인으로서의 위암. 『나라사랑』, 제5집.

1973 언론인으로서의 남궁억. 『나라사랑』, 제11집.

1974 이십세기 초반의 동양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비교사적 연구(기일). 『신문연구소학보』, 제11집.

1975 한국 커뮤니케이션사 연구의 방법에 관한 일고찰. 『신문연구』, 제26권, 제1호.

1976 한국신문학의 성립과정과 그 연구현황의 계보의 고찰. 『저널리즘』(한국기자협회), 봄호.

1976 È tat actual des publications des mass-media et problemes qui se posent à ce sujet. 『Revue de Corée (Commission Nationale Coréene pure L'UNESCO)』, Vol. 8, No.1.

1976 개항백년의 한국언론. 『신동아』, 1976년 7월 호.

2. 커뮤니케이션 역사의 사회사적 방법론에 대한 희관의 관점

무엇보다 언론학에 대한 희관 선생의 가장 큰 기여는 1967년 『신문발달사(新聞發達史)』를 상재한 이후 여러 논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사학¹⁾

1 희관은 초기에 신문사학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후기에 가서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라는 말을 직접 사용했다. 희관의 저술을 연대기적으로 놓고 보면 초기에 독일 국민경제사와 문화사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후기에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증적 언론사를 접한 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였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역사를 다루는 논문에서는 신문사, 신문사학, 신문현상의 비교연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아무래도 당시 좁은 의미의 종이신

의 사회사적 방법론의 기초를 닦았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저서의 목록에서 보듯 희관은 세계언론사를 개관하고, 동양언론사, 그리고 한국언론사로 내려오는 자신의 학문세계를 구축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 같다. 『신문발달사』를 출간한 지 2년 뒤에 “東洋에 있어서의 근대신문의 생성과정에 대한 비교사의 연구”를 『아세아연구』에 발표했고, 74년에 “二十世紀 初半의 東洋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比較史的 研究(其一)”를 『신문연구소학보(新聞研究所學報)』(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제11집에 게재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1975년 “韓國 커뮤니케이션史 研究의 方法에 관한 一考察”라는 논문을 관훈클럽에서 내는 『신문연구(新聞研究)』에 실었다. 한 학자의 생애에서 자신의 공부 방향을 미리 정하기도 어렵고, 정해 놓아도 흔들리기 마련인데, 큰 연구 그림을 그려놓고 계획에 따라 연구를 진행한 선생의 한결같음이 놀라울 따름이다.

『신문발달사』는 지금 읽어봐도 참 잘 쓴 책이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신문이란 종이신문으로서의 신문이 아니라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2장 “원시 및 고대사회의 신문적 현상”이란 제목 아래 원시사회 신문적 현상을 뷔처(Bucher)와 정구일랑(井口一郎)을 인용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원시인의 신문은 이중의 뜻을 가진 것이니, 하나의 객관의 具象 事實이요, 다른 하나는 주관적인 의미를 가진 해석이다. 즉 원시인의 커뮤니케이션(직접적인 방법을 통한)은 두 가지 큰 제약 아래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른바 集團表象(representations collectives)이 그 하나요, 그 집단표상의 내용에 대한 비과학적 주관적 인식이 다른 하나이다. (27쪽)

문으로써 신문사, 잡지사 중심의 부분사가 주류를 이뤘던 60년대, 70년대 풍토에서 커뮤니케이션 역사라는 용어를 제목으로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싶다.

원시인들은 개인생활이 없으며 집단적으로 근거했기 때문에 집단 표상만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개인표상의 세계는 곧 사회표상의 세계였던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자연의 움직임과 사회적 사실에 대한 지식의 공시자는 자연히 신의 계시 기관인 장로, 사제, 승려, 무녀 등이었고, 그 공시의 형태는 영혼, 신칙, 천계 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라 한다. 외국학자들의 앞선 연구가 있기는 했지만 60년대에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사를 구상하면서 원시커뮤니케이션부터 구상한 웅대한 모습은 지금 봐도 주눅이 든다. 선생의 제자로 학계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었던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희관은 당시까지 제출된 신문사 방법론의 갈래를 네 가지로 나누었다. 첫째는 독일의 뷔처와 마이스터(Meister) 등 신문에 대한 국민경제사적 연구줄기, 둘째, 영국의 실증사학에 기초한 신문사학 연구줄기, 셋째는 도비파트(E. Dovifat)와 이후 재거(K. Jager), 하게만(W. Hagemann) 등 푸브리찌스틱 이론을 정초한 문화사로서 신문사연구 연구줄기다. 이들 세 가지 유럽의 줄기에 더해 희관은 페인(G. H. Payne)의 “History of Journalism in the United States”(1920), 모트(F. L. Mott)의 “American Journalism”(1941) 실증주의에 기초하면서, 정치문화, 경제사를 아우르는 미국언론사 연구줄기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들 네 가지 신문사 방법론을 정초한 학자들의 저작들은 선생의 저술 곳곳에서 인용되고, 비판적으로 분석되고 종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독일, 영국, 미국의 문화사, 실증사, 국민경제사를 종합하는 방법론으로 코브레(Sidney Kobre)의 “The Sociological Approach in Research in Newspaper History”를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²

코브레는 신문현상을 사회제도의 하나로 연구하기 위해, 4가지 기

2 이번에 『신문발달사』와 다른 논문을 보면서 희관 선생님 수업시간에 코브레의 논문을 발제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1977년 선생님 수업을 수강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수업은 연구실 소파에 앉아서 했다. 코브레의 논문을 복사본으로 나눠 주셨는데, 하도 여러 번 복사를 한 까닭에 잉크가 뭉개지고, 활자가 겹쳐 있어, 젊었던 내 눈에도 몹시 피곤했던 기억이 새삼스러웠다.

본요소를 제안했다. 1) 존재이유 또는 목적, 2) 그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3) 그 제도의 구조 속에 잠재하고 있는 민족적 관습, 전통, 기술의 유형, 4) 제도운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선생은 이것을 인용하면서 신문제도의 변화를 포착하고, 신문이 사회와 어떤 관련에 놓이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언론사 연구의 기본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기본 위에서 신문의 발생, 성장, 소멸을 이끌어 내는 사회, 문화, 심리, 기술 그리고 경제상의 조건과 경향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의 역사를 사회사적으로 접근할 때 주요한 항목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신문발달사』가 인용하고 있는 큰 항목만 나열해 보면(22, 23쪽) 커뮤니케이션 전체사의 면모가 보인다.

- 1) 인구의 변화
- 2) 경제적 발전: (1) 농촌생활양식, (2) 초기의 공업화 시대, (3) 상업 및 무역의 제조건, (4) 상업-소비와 판매의 발전, (5) 사회의 경제적 내지 사회적 계급, 광고의 성장
- 3) 기술의 발전
- 4) 지역사회의 형태
- 5) 교육제도
- 6) 문화생활의 내용
- 7) 사회심리적 조건

그는 이렇게 일곱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피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커뮤니케이션 사회사의 기본틀을 스스로 갖춘 이후 희관은 이를 “1975년 韓國 커뮤니케이션史 研究의 方法에 관한 일고찰”이란 제목으로 『신문연구』에 발표하면서 한국의 커뮤니케이션사 시대구분의 초안을 제시했다.

이 시대구분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는 당시까지 출간된 안재홍 선생의 『조선신문소사』부터 성준덕 『한국신문사』(1955), 최준 『한국신문사』(1960), 유광열 『기자반세기』(1969), 김을한 『신문야화: 30년

표 1. 화관 선생의 한국 매스커뮤니케이션 역사 시기 구분

일반사의 시대 구분	새로운 공동 사회	부족 국가	귀족국가				
(시대)	전통적 커뮤니케이션의 시대		근대적 커뮤니케이션 생성시기				
(시기)	원시적 커뮤니케이션 시기	전근대 적 커뮤니케이션 시기	제 1 이식기 (1883~1884)	제1무신문기 (1884~1886)	제2 이식기 (1886~1888)	제2무신문기 (1888~1896)	근대적커뮤니케이션의 성장투쟁기 (1896~1910)
일제사회			광복				
범모·외토의 시대			재생·발전의 시대				
제3 무신문기 (지하신문기) (1910~1920)	재생 수난기 (1920~1940) (일제관영방송기:1927~)	제4 무신문기 (반민족신문기) (1940~1945)	혼란기 (1945~1948)	정착기 (1948~1960) (민영산업방송생성기: 1954~1967~)	자유기 (1960~1961)	자유기 (1961~)	

대의 기자수첩』(1971), 이해창 『한국신문사연구-자료중심』(1971) 등을 검토했다. 일반사에서 이기백, 손진태의 한국사 시대구분을 고려하면서, 당시까지 제출된 논문으로 천관우의 “한국신문전사의 몇 가지 문제”와 “한국신문 80년의 발자취. 제1부 해방이전” 그리고 장용, 장을병, 최정호 등의 논문에 제시된 시대구분을 고려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희관은 이렇게 쓰고 있다.

전근대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 뛰어나게 우수했던 우리의 인쇄문화가 근대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하지 못한 사적 원인을 구명해 보는 작업 같은 것은 매우 유의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로 사관의 정립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 중대한 학문적 과제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발언할 처지가 아니라, 사관이 전혀 없었던 것이나 다름없는 커뮤니케이션사 분야에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짐작되는 것이다. (234쪽)

그는 한국 언론학이 이제 막 성립하려던 1970년대 중엽에 한국커뮤니케이션 역사의 시대구분을 제안하고, 그 제안의 말미에 한국의 전근대 커뮤니케이션이 지속적 발전을 이룬 까닭을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신문매체 중심의 역사만을 거의 편년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던 당시의 연구풍토에 ‘경솔하게 발언할 처지가 아님’을 인정하면서 과감하게 매체사를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사적 연구로 확대해야 함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번에 희관선생의 커뮤니케이션 역사 방법론 관련 연구를 다시 읽으면서 2013년 현재 한국언론학의 현재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무엇보다 언론학의 탈역사화가 진행되고,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산업의 전개에 따라 연구 분야가 이동해가고 있는 양상을 보면, 희관 선생의 희망을 ‘경솔하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3. 동아시아 미디어 비교연구에 대한 희관의 시점

한국의 언론사를 조망하는 데 희관은 매체 자체의 편년사적 기술은 역사학이 될 수 없다고 믿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언론의 역사를 전반적인 사회변동의 역사 안에서 조망하는 사회사적 시각을 채택하고자 했다. 사회사적 방법을 채택하면서 희관은 한국 언론이 형성되는 초기를 바라보는 시야로서 중역적(重譯的) 근대화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희관은 한·중·일 근대적 매스커뮤니케이션 형성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3국이 상당히 다른 길을 갔음에 대해(차이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는 “이러한 서구의 동양에의 접촉과 이에 대한 반응—토인비(A. Toynbee)의 이른바 도전과 응전(Challenge and response)—의 양상과 가정이 동양 3국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 점에 주목하여 할 것이다” (임근수, 1984, 35쪽)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경우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신문화에 대한 도입이 늦어진 까닭으로, 1) 중화 사상적 우월감이 있었고, 2) 포르투갈에 이어 네덜란드, 러시아, 이태리, 영국 등이 동남아시아와 중국에 대해 제국주의적 침략의 틀에서 접근했던 만큼 그에 대해 경계심을 상당히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임을 지적하였다.

일본 역시 서구의 도래에 대해 1639년 이후 쇄국정책을 채택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보았다. 이를테면 이익이 좋은 통상에 대해서는 중앙 막부정권이나 지방의 영주들 모두 관대한 정책을 썼을 뿐만 아니라, 나가사키 같은 곳에서는 1579년 포르투갈의 상관촌을 허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 점에서 희관은 브론펜브레너(M. Bronfenbrenner)를 인용하여 일본과 중국, 인도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일본 문화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로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것인데, 여기에 인도와 마래의 색채가 가해졌다. 그것과 똑같은 수용력이 16세기에는 일시적이거나 서양 문화에 대하여 발휘되었다. 따라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 태도를 부활하는 일은 용이한 것이었다. 무갈 왕조하의 인도나 청조의 중국은 자국에 대한 우월감이 너무나 지나쳐 강세하

였던 까닭에 서양으로부터 배워 얻지 못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Bronfenbrenner, 1969, 일역문에서 재인용; 임근수, 1984, 36쪽 각주 8번 참고).

어딘가 서구문화의 도입에 경색되었던 중국, 유연하게 대처했던 일본에 비해 조선은 ‘독 틈의 탕관’과 같이 망각의 지대에 있었던 것이라 보았다. 희관은 오페르트(Oppert, 1880)의 *Reisen nach Korea, Ein Verschlossenes Land*,³ 그리피스(Griffis, 1882)의 *Corea: The Hermit Nation*, 헐버트(Hulbert, 1906)의 *The Passing of Korea*를 인용하면서, “조선 정부의 냉혹한 배타 정책이 성실하게 고집되어”온 연유를 “이 반도는 수세기 동안 약탈욕에 불타는 인접국의 음모와 침략 전쟁(임진, 병자 양탄)을 이미 겪고 나서, 그러한 종족들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가 되어져서 이래로 모든 외부 세력에서 격리되어지도록 애써 왔던 것”(37쪽)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쇄국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면서 근대적 제도들을 초기에는 중국, 19세기 말에는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황을 ‘중역적 근대화’라 개념화했던 것이다.

중역적 근대화는 서구의 근대적 언론제도를 중국과 일본을 통해 들여와서 나름의 근대적 언론제도를 발전시킨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 희관은 근대적 언론제도의 이식(移植)과정을 설정한다. 그는 근대적 언론제도의 ‘자연발생’과 ‘비자연적 발생’을 구분하고, 자연적 발생이란 고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시원(始原)해서, 중세 봉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행태로 형성된 뒤 다시 근대사회의 근대적 언론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유럽의 경우는 ‘자연발생적 시원설(始原說)’이라 이름 붙이고, 동아시아의 경우를 ‘비자연발생적 이식설’이라 부르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그동안 희관선생이 제안한 근대언론제도의 이식설을 필자 역시 이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그의 이식설은

3 한우근 옮김(1959).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 서울: 한국번역도서.

대단히 흥미로운 이론적 논의를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조선을 포함해서 비유럽 지역에서 근대적 언론제도의 발생에 있어서 연속과 단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희관 선생이 상당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는 『신문발달사』에서 유럽의 신문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 가지를 검토했다. K. Bucher의 Acta Senatus와 Acta Diurna를 근대신문의 기원으로 보는 학설, 독일과 이태리의 중세상인의 서한신문이었던 Novela 기원설(M. Bode가 주장), 그리고 Max Garr가 16세기 중세 도시사회의 회장에서 기원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어느 것이 타당하든 근대신문의 원형이 언제 나타났는가를 따지는 일은 유럽에서는 중요한데, 비유럽 지역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희관은 비유럽 지역에서 근대신문은 이식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근대의 신문현상과는 계보적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던 것이다.

후자의 경우(동아시아 사회; 인용자) 근대신문은 신문적 현상의 계보적 연속의 경우에 있어서의 발전 형태로서 파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계보적 단절이 존재함으로써 어떤 일정한 역사적 시기에 비로소 전연 별개의 계보로서 성립하여 출발되어진 것이라는 가설이다. (언론과 역사, 216쪽)

이렇게 비유럽 지역에서 근대적 제도로서 언론현상이 전근대 제도와 단절된 현상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은 사실 대단히 논쟁적인 주장이 된다. 근대적 신문이 이식된 제도라고 볼 때는 이견이 있기 어렵지만, 전근대 사회의 그것과 단절된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조선의 경우 존재했던 전근대적 신문으로서 조보(朝報) 그리고 공론의 현상으로서 사림공론(士林公論), 여항공론(閔巷公論) 등이 근대 이후 제도와 단절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희관은 계보적 단절이 갖는 의미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아닌 게 아니라 종래의 신문사의 연구가 대부분 그 시기를 고작해야 봉건시대의 후기로부터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평지 돌출격의 전혀 독립한 (즉 역사적 명맥과는 아주 무관계의) 사적 과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구절은 그런 인식을 잘 보여 준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한반도 커뮤니케이션사, 매스 커뮤니케이션사를 아우르는 역사시대 구분론에서 역사의 연속과 불연속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근대신문이 이식되고, 계보적 단절이 성립된다는 주장은 동아시아 언론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질문에서 한쪽의 답을 제시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4. 미디어 산업론의 개척자로서 희관: 매스커뮤니케이션 사업의 본질

희관선생은 해방 후 *Korea Times* 기사를 거쳐 서울신문사 상무이사(1953~1955), *The Korean Republic*(현 『코리아헤럴드(Korea Herald)』) 감사(1953~1961), 세계통신사 이사(1957~1960)를 지냈다. 요즘으로 치면 신문사 경영진(54년부터는 최초의 언론학 학사프로그램이었던 홍익대학교 신문학과 조교수로 겸임)이었다. 신문사 경영에 관련한 경험이 후에 매스컴 사업의 본질에 대한 연구에 기초가 된 셈인데, 어떻게 해방 후 최초의 영자신문(1945년 9월 5일 창간) 기자로 들어갔는지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Korea Times*는 오늘 한국일보 자매지로 있는 『코리아타임즈(The Korea Times)』와는 관계가 없는 신문이었다.

희관의 회고에 따르면 *Korea Times*는 식민시기 하버드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하경덕 박사가 이모목 박사(구 연희전문 교수와 미8군 사령관 고문관을 지냄)와 백낙준 박사의 지원을 받아 창간하였다. 창간 당시 편집진에 오천석, 김영희, 유형기 등이 있었고, 보진제 인쇄소의 영문활자 인쇄시설을 이용해 신문을 발행했다. 취재 편집기자로 한길수(홍익대학교 교수), 이용희(후에 동아일보 기자와 대통령 특보), 이성범(초대 주미 상무관, 범양사 회장) 그리고 희관 선생

이 참여했다고 한다. 희관은 당시 중앙청 출입을 담당했다. 당시로서 전문지식뿐 아니라 뛰어난 영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던지라, 많은 분들이 대학교수와 관계(官界)로 자리를 옮기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하경덕 발행인이 서울신문 부사장으로 초빙되면서 희관 역시 서울신문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이다. *Korea Times* 제호도 가지고 갔으나, 곧 중단되고 말았다. 이것이 희관 선생이 영자신문 기자에서 출발해 서울신문 경영진으로 변신한 과정이 되는 것이다.

희관의 연구업적을 보면 신문산업, 신문경영과 관련된 연구가 여러 편 있는데, 1968년 “新聞의 普及率에 관한 小考” 『한국사회학(韓國社會學)』과 1969년 “매스 커뮤니케이션 事業의 本質에 대한 一考察”, 『신문연구소학보』가 대표적인 저작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문연구소학보』 6집에 실린 이 논문과 문교부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한국 매스 미디어 산업 경영의 변천 과정과 현황 분석”이라는 연구는 미디어 산업론의 체계를 갖춘 발군의 연구성과라 할 수 있다. 요즘의 기준으로 읽어도 질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연구성과로 평가될 정도다.

『신문연구소학보』에 실린 앞의 논문에서 희관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사업을 비교제도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찰스 라이트(Charles Wright), 소야수웅(小野秀雄), 시버트(Siebert), 피터슨과 슈람(Peterson & Schramm)의 ‘Four Theories of the Press’뿐만 아니라 도비파트(E. Dovifat)가 제시한 언론제도의 유형을 공시적 수준에서 개관할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 유럽방송의 언론제도적 형태 내에서 민간방송 중 자주관리, 국가의 간접관리, 국가의 직접관리 유형을 일별하고, 미국의 민영방송과 역사적으로 비교하였다. 공시적, 역사적으로 언론제도 자체를 검토한 뒤 언론 사업의 사회제도론적 규제와 시장운영의 체계를 세밀하게 논의하였다. 여기에는 드플뢰르가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에서 그렸던 미국의 언론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희관이 이렇게 언론사업의 제도적 역사적 토대를 검토하는 과정을 보면 언론자유와 기업의 독립성의 충돌, 대기업 자본의 보호수단으로서 미디어 기업, 언론기업의 경영합리화 문제를 깊이 고심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고심의 내용은 “한국 매스 미디어 산업 경영의 변천 과정과 현황 분석”의 결론 부분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의 신문 통신 기업은 무엇보다도 자본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거나, “회사의 형태에 있어서 기업적 성격과 사회 공기의 성격을 동시에 조화롭게 살릴 수 있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부수를 공시하고 기자의 급여 기준을 현실화해서 언론인의 품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 등에는 1969년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앞날을 내다보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희관의 언론관이 잘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5.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희관의 삶

이 글을 쓰기 위해 희관 선생의 큰 아드님 되시는 임동진 변호사께 부탁을 드려 혹시 일기나 스크랩북 같은 자료가 남아있으면 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임동진 변호사께서 기꺼이 스크랩북 몽치를 보내주셨다.⁴ 이 글과 관련해서는 1972년 신문대학원 논문발표회 발표자료집이 재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자료집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세미나 계획 및 주제 논문’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고, 이 날 발표된 학생논문 목록을 보면 권용대 “루머 개념에 대한 일고”(조명환 강평), 강대근 “Opinion Leader에 대하여”(이상희 강평), 안연숙 “신문의 외래문화 전달과 그의 가치형성 기능—1960년대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신문의 문화적 기능연구의 일환으로”(박유봉 강평), 서상섭 “언론의 자유와 책임”(김규환 강

⁴ 이번에 살펴본 스크랩북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자료들이 나왔다. 신문대학원에서 사회대 신문학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AMIC에 알리는 영문 편지 교정최도 볼 수 있었고, 서울신문사 상무시절 인쇄기를 외국에서 구입한 영수증도 있었다. 1954년 미국 언론연수를 다녀오셨던 노스웨스트 항공사 항공권도 책갈피 안에 숨어 있었다. 이들 자료를 잘 보관해서 희관홀에 전시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 조보예 “경제시책과 실천상의 모순점. 매스콤의 조사방법론적 접근”(김일철 강평), 주래성 “한국신문의 抵抗性에 대한 재고(임근수 강평)”로 되어 있다. 발표자료집이라 논문 전문이 실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길이로 발표자들의 주장이 제대로 나타나 있으며, 이 논문에 대해 희관 선생이 볼펜으로 기록한 메모도 자세히 남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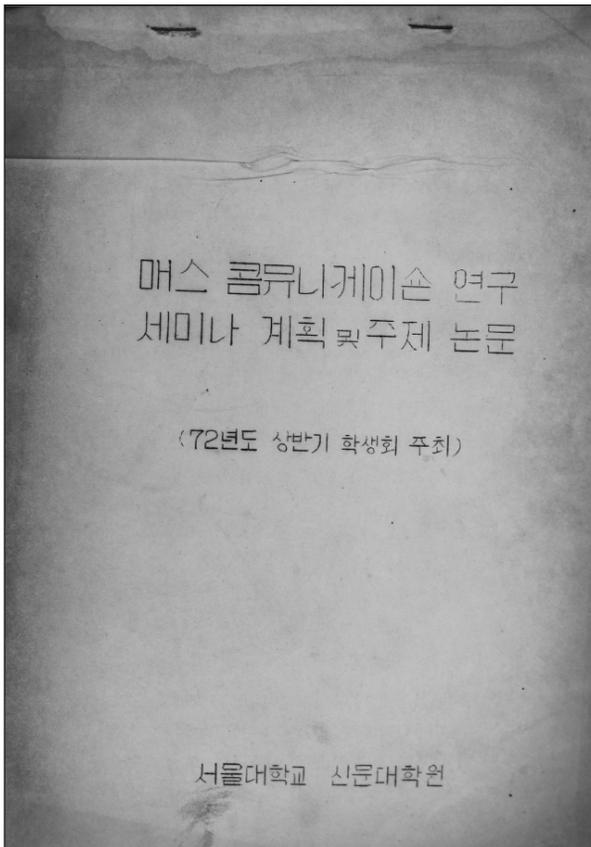


그림 1. 신문대학원 발표회 자료

(한국 신문의 抵抗性에 對한 再考)

?

주태성

오늘날 신문의 自由가 새로운 개념으로 바꾸어 ?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의 自由는 정부권
력에 對한 直接 또는 間接으로 抵抗하는 소위 언
론의 투쟁사를 이루이 왔다는 일반적 견해가 1960
年代 以後 싹트었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가 얼마
큼 妥当性을 갖고 있으며,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
지고 있는나 하는 문제를 ① 그 논의의 발달과
배경. ② 發展的(動的) 과 신문의 抵抗性

③ 意見形成과 抵抗性으로 나누어 생각하고자 한다

(I) 저항성 논의의 발달과 배경

우리나라에 있어 近代의 신문이 등장한 史
的 背景과 그 成長과정을 볼때 신민지하에서 抗
日과 救國, 해방직후 정치적 혼란기에 있어 極限한
左右對立, 自由黨 집권시의 一人独裁에 對한 투쟁적
態度로, 오늘날에 이서도 한국신문은 反政府的 態度
라는 否定的 生理가 體質的 體質으로 남아 있
여기다

~61~

그림 2. 희관 선생의 지도내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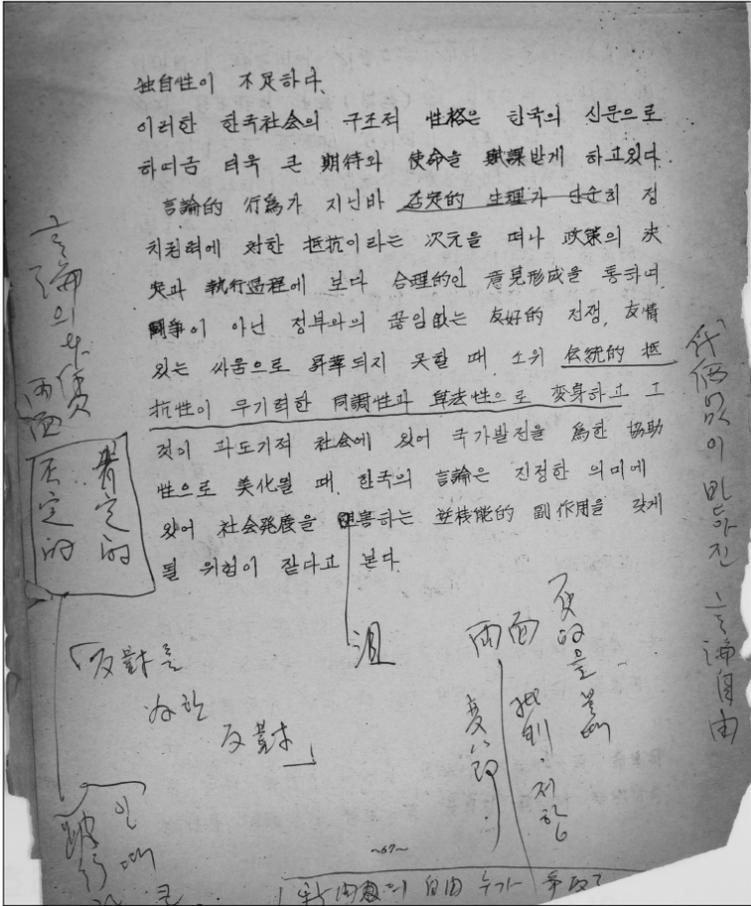


그림 3. 희관 선생의 지도내용2

사진에서 보이듯이 희관은 발표자의 주장과 주장을 끌어내는 과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 주장을 보완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메모를 했음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메모와 발표자의 주장, 논리 전개를 대조하면서 희관 선생이 꼼꼼하게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었고, 스스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 이런 생각도 가

능하다는 제안 정도를 하는 자기절제의 모습을 보임을 추측할 수 있었다. 지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런 교수가 더 무섭지 않았을까.

메모 1: “정치권력의 세력균형이 Unipolar pattern(單極的型)이기 때문에 일반민중의 의사를 파악 엘리트에 전달 반영할 만한 야당의 경제력이 약하고”라는 주장에 대해 희관 선생은 “모든 나라. 사법, 입법, 행정 3권분립, 학문의 자유”라는 메모를 적었다. 추측컨대 단극형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본 제도로는 3권분립이 있지 않은가라는 반문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메모 2: “정당과 결사적 이익 집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견의 집약과 표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라고 쓴 구절 옆에 “비자연발생적 이식”이라는 메모가 보인다. 한국 언론이 의견의 집약과 표출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원인이 비자연발생적으로 이식된 역사적 뿌리에 원인이 있음을 말했으리라 짐작된다.

메모 3: “(정부와 언론 사이가: 인용자 첨언) 우정 있는 싸움으로 승화되지 못할 때 소위 전통적 저항성이 무기력한 동조성과 卑法性으로 변신하고”라는 평가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대가없이 받아들여진 언론자유”, “언론의 본질 양면, 긍정적 부정적. 반대를 위한 반대, 跛行적일 때 큰害”라는 메모가 보인다. 이것 역시 신문의 저항성이 사회발전에서 지나는 긍정적 역할이라는 발표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저항성 이후의 문제, 즉 신문의 상식일반, 기업구조 등”(이 부분 메모는 별도의 페이지에)도 고려해야 한다는 코멘트를 한 것으로 보인다.

메모가 담고 있는 내용에 관계없이 희관 선생의 꼼꼼한 성품, 상대방 주장에 대한 선생의 균형 잡힌 시각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에 희관선생의 삶과 학문을 되짚어 보면서 희관선생은 내가 좋아하는 가수 김광석 같다는 생각을 했다. 김광석은 80년대의 사랑과 고뇌를 노래하면서도 참 단단하고 정결하다는 느낌을 주는 가수다. 김광석이 노래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고음에서 소리를 내지르기보다 오히

려 입을 닫는다. 고음에서 대부분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내지르는 식으로 소리를 내는 게 보통인데 김광석은 고음에서 오히려 입을 다물다시피 붙이고, 고개를 안쪽으로 숙이면서 소리를 낸다. 그는 보통의 가수들이 흔히 하듯 슬픔이나 절망을 내지름으로써 감정을 흘뜨리지 않는다. 거꾸로 고음 부분에서 소리를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절제하기 때문에 울림통이 공명하는 소리가 정결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희관 선생은 그렇게 기자로서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신 것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근세사의 절망에 분노하는 모습을 글의 곳곳에 볼 수 있었고, 해방 후 사회 현실에 대해서도 걱정과 근심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학자로서의 균형감, 사회과학으로서 ‘신문학’의 체계를 잡아야겠다는 열정 등을 그대로 소리내기보다는 절제하는 목소리의 글로 쓰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문헌

- 임근수 (1961). 新聞의 用語 用字問題에 대한 考察. 『法政論業』. 中央大學校.
- 임근수 (1964). 編輯權의 擁護와 獨立. 『新聞評論』, 2호.
- 임근수 (1967). 『新聞發達史』. 서울: 正音社.
- 임근수 (1968). 新聞의 普及率에 관한 小考. 『韓國社會學』, 4집.
- 임근수 (1969). 東洋에 있어서의 近代신문의 生成過程에 대한 比較사의 연구. 『아세아연구』, 36호.
- 임근수 (1970). A History of English-Language Journalism in Korea. 『신문연구소학보』, 7집, 119~149.
- 임근수 (1974). 二十世紀 初半의 東洋에 있어서의 매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比較史的研究. 『신문연구소학보』, 11집, 3~50.
- 임근수 (1975). 韓國 커뮤니케이션史 研究의 方法에 관한 一考察. 『新聞研究』, 26권 1호.
- 임근수 (1976). 韓國言論三十年史.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사 편. 『解放三十年史』.
- 임근수 (1977). 『매스 커뮤니케이션 原論』. 서울: 民衆書館.

DeFleur, M. L. (1966). Theories of Mass Communication.

Griffis, W. E. (1882).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 Scribner.

Hulbert, H. B. (1906). *The passing of Korea*. Doubleday, Page & Company.

Kobre, Sidney. (1945). The sociological approach in research in newspaper history. *Journalism Quarterly*, 22, 12~22.

Mott, F. L. (1941). *American journalism: A history of newspapers in the United States through 250 years, 1690-1940*. NY: Macmillan.

Oppert, E. J. (1880). *Ein Verschlossenes Land, Reisen nach Korea*. 한우근 옮김 (1959). 『금단의 나라 조선기행』. 서울: 한국번역도서.

Payne, G. H. (1920). *History of journalism in the United States*. D.Appleton.

최초 투고일: 2013.06.28

논문 수정일: 2013.08.05

게재 확정일: 2013.08.08